

심리치료에서의 침묵: 개관

신 경 진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한국의국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본 논문에서는 정신분석과 상담에서의 침묵에 관한 연구의 역사를 간단히 기술한 다음, 침묵의 정의와 효과 및 침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를 차례로 개관하였다. 침묵의 정의는 침묵의 길이와 침묵의 소유자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여 다루었다. 침묵의 길이에 대한 정의에서 언어학과 상담 및 정신분석에서의 침묵의 길이에 대한 분류를 비교 논의하였다. 침묵의 종류와 소유자에 대한 정의에서는 Hill(1978, 1981)과 Matarazzo 등(1967, 1968)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Hill(1978, 1981)은 침묵을 소유자별로만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나 Matarazzo 등(1967, 1968)은 침묵을 2자간 대화 내에서 발생맥락에 따라 4종류의 침묵을 구분하였다. 심리치료에서의 침묵의 효과 연구는 침묵이 상담의 성공, 공감, 면접만족 등과 관계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상관 연구였다. 상담과정과 침묵의 연결은 Hill(1978, 1981)이 언어유목에 침묵을 포함시키면서 자극되었고, 여러 언어반응과의 관련성 속에서 상대적인 침묵의 효과를 구별해내려고 하였다. 침묵과 상담과정을 연결시킨 여러 연구들이 혼합된 결과를 보이는 여러 가지 가능한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 영역에서는 교사의 강의기법의 하나로서 3-5초의 침묵 사용이 교사와 학생의 발언의 질과 학생의 성취를 높인다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침묵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반응잠복시간의 증감, 처리과제의 복잡성 등이 침묵의 지속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침묵과 관계된 하나의 변인으로 Matarazzo 등(1968)에 의해 발견된 반응잠복시간 동시성(reaction time latency synchrony)이라는 개념은 2자간 대화에서 한 사람이 반응잠복시간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때 이에 상응하여 상대방의 반응잠복시간이 변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는 2자간 대화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침묵에 관한 연구가 아직 이론이 수립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결론과 함께 침묵관련 연구들의 방법론적 문제점과 미래의 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심리상담은 45분 내지 50분간의 상담회기 동안에 일어나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말과 침묵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심리치료 연구의 역사는 주로 말에 초점을 두었고, 침묵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 소수의 침묵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연구 흐름이 있다. 첫 번째는 정신분석에서의 침묵의 연구이고, 두 번째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온 상담과정 연구에서의 침묵 연구이다.

정신분석지향적 심리치료에서의 침묵 연구의 역사

정신분석은 치료자의 절제규칙과 내담자의 자유연상을 치료의 기본 규칙으로 삼는다. 절제규칙이란 분석가가 환자와의 모든 사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Mentzos(1982)는 “절제규칙을 지키기 위해 분석가는 환자에 대해 신뢰, 동정, 안심, 위로 등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명령과 금지, 충고, 교훈이나 사적인 의견...가치판단이나 설득을 통해 내담자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고 있다(p.271). 따라서, “처음부터 동의된 역할인 말하는 환자(patient-as-talker)와 듣는 분석가(analyst-as-listener)의 역할이 분석 상황의 중심구조부분을 이룬다”(Zelig, 1961). 이러한 기법적 특성으로 인해서 정신분석에서는 다른 어느 치료적 접근보다도 침묵이 많고, 침묵의 속성에서도 다른 일반적인 심리치료에서의 침묵과는 성질이 판이하게 다르다.

Zeligs(1961)의 조사에 따르면, Psychoanalytic Quarterly(1932-1957),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1920-1957),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1953-1957)에 실린 논문 중에, 제목에 침묵이 들어간 논문은 단 4개에 불과하였다. 그는 이처럼 침묵의 연구가 드문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는 침묵이 보편적이고 포착하기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자유연상 기법이 일차적으로 환자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려는 Freud 자신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전통적인 잔재가 오늘날에도 남아서 ‘환자가 말할 수 없으면 분석은 불가능하다’는 보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Hadda(1991)는 “수년 동안 환자의 침묵을 언어에 대한 저항으로 보아 왔고 이러한 입장은 결국 치료를 난국으로 이끌었으며, 치료자의 침묵은 치료자 고유의 중립적인 비어 있는 영사막(blank screen)으로서의 치료자의 과제 수행으로 받아들여졌다”(p. 117)며 침묵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신분석에서 침묵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Ferenczi(1911)로, 그는 침묵을 환자가 외설스런 단어를 말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로 보았다. 이후 침묵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58년에 침묵하는 환자(silent patient)의 주제가 미국정신분석학회에서 패널토의 형식으로 다루어지고, 여기에서의 초록이 1961년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에 특집으로 실리면서 시작되었다. 이 토론은 침묵하는 환자는 저항하는 환자라는 점에 의견이 수렴되었지만, Greenson(1961)은

의사소통으로서의 침묵이 저항으로서의 침묵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Hadda (1991)는 “정신분석적인 침묵이 의미가 있으며 결실 있게 탐색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토론에 의의를 두었다.

이 패널 토의 이후 간헐적으로 침묵에 관한 논문이 정신분석관련 학술잡지에 실리고 있는데, 그 주요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대부분이 장기적인 침묵이거나 말없는 환자(silent patient)의 침묵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모두가 질적인 연구로, 침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 다음 임상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양화하려는 시도가 없다는 점이다. 정신분석에서 질적 연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분석자체가 연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rlow(1961)는 정신분석이 “치료하면서 연구하는 과정 그 자체(therapeutic-investigative process itself)를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정신분석의 주요 특징의 하나로 보았다. 정신분석은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무의식적 심리역동에 대한 치료자의 가설(공식화)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과정이고 가설이 내담자와의 치료 작업을 통해 맞지 않으면 기각, 수정, 보완, 폐기, 재수립하여 다시 확증 및 기각의 과정을 밟아가는 치료이므로, 치료 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의 연구방법을 취하며, 양적연구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침묵 연구의 역사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의 침묵에 관한 연구는 정신분석에서의 침묵 연구보다는 그 역사가 짧으며, 1950년대 후반에 Matarazzo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실험실 면접과 심리치료에서의 침묵 현상에 대한 방대한 일련의 기초적인 양적 연구를 하였다. 이후 이들의 기초적 연구에 자극을 받아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담효과 연구 및 상담과정 연구의 일환으로 침묵을 상담과정과 연결시키는 연구가 시작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침묵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상담에서 침묵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연구들이고, 둘째는 상담자의 반응이나 치료적 개입과 내담자의 반응을 언어범주화하는 시도에서 침묵도 하나의 언어반응 유목으로 포함시켜서 치료과정과 연결시킨 연구들이다(예: Hill, 1978, 1981; Hill, Carter, & O'Farrell, 1983; 정방자, 1986). 셋째는, 초언어적(paralinguistic) 현상의 하나인 침묵이 2자간의 상호작용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화자전환침묵(switching pause) 현상에 대한 실험실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상담과정 연구에서의 침묵 연구의 특징은 정신분석에서의 침묵 연구와는 달리 침묵을 양화하였고 침묵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현상을 밝혀 내려 하였다. 또한 치료과정의 맥락에서 침묵이 상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 지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1950년대 후반에 시

작되어 1960년대에 다소 흥하다가 1970년대에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고, 침묵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에도 일관성이 없다. 이에 대한 몇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로 침묵은 양적으로 측정을 하고 평정자간의 일치도를 내는데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저마다 지속시간이 달라서 한가지 언어범주로 묶는다는 것이 사실 무리이다. 예컨대, Hill(1978, 1981)은 말과 말 사이에 5초의 말멈춤이 있을 때 이를 한 개의 침묵으로 범주화하였는데, 5초간의 침묵과 60초간의 침묵을 같은 효과를 지니는 침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로 침묵은 발생 맥락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침묵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았다. 예컨대, 침묵이 화자가 바뀔 때 오는가 한 사람의 발언 중간에 오는가 뿐만 아니라 누가 시발하고 누가 종식한 침묵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와 효과가 다를 것이다. 더 나아가 침묵의 소유도 학자마다 다른데, Matarazzo와 Wien(1967)은 침묵의 종식에 기준을 두어서, Hill은 침묵의 시작에 기준을 두어서 침묵의 소유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침묵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니는 함의는 누구의 기준에 따라 침묵을 연구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셋째로, 침묵의 개인 내적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 어떤 내담자는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내담자는 깊게 음미하고 생각해 보느라고 말을 안할 수도 있다. 넷째로, 1970년에 시작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풍미하는 인지치료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인지치료는 그 기본 입장이 토론을 통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당연히 말

이 중심이 되며, 이 입장에서는 침묵이 설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상에서 침묵 연구의 역사적인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심리치료에서의 침묵의 정의와 발생 현황, 침묵의 효과, 침묵에 영향 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를 개괄하고 침묵 연구의 제한 및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다.

정신분석에서의 침묵 연구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대부분이 질적인 연구이고 침묵의 속성도 여타의 일반 심리치료에서의 침묵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본 개관에서는 다루는 않을 것이다.

침묵의 정의에 관한 연구들

침묵의 길이

침묵은 두 사람 이상이 대화를 할 때 존재하는 말과 말 사이에 말이 없는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침묵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2자간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침묵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여기서 말과 말 사이에 얼마의 시간간격을 침묵으로 정의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담화자료(talking data)를 연구하는 언어학에서는 담화에서의 침묵(pause)의 위치와 타이밍이 화자의 담화 산출 과정(Chafe, 1980)과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상호작용의 지향성(예: Goodwin, 1981)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대화축어록을 작성할 때 침묵을 그 길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Du Bois, Schuetze-Coburn,

Cumming, & Paolino, 1993). 긴 멈춤(long pause)은 0.7초 이상의 침묵을 말하고, 중간 멈춤(medium pause)은 0.5초정도(.3초에서 .6초 사이), 짧은 멈춤(short pause)은 0.2초 이하의 침묵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자간 발화를 교대할 때 말멈춤이 없는 경우(latching)와 말이 중복이 되는 경우(speech overlap)까지도 구분하여 코딩한다. 이렇게 침묵을 세분하여 구별된 범주로 나누어 코딩을 하는 것은 그 각각의 범주가 지니는 의미가 다를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Matarazzo와 Wiens(1967)과 Matarazzo, Wiens, Matarazzo 및 Saslow(1968)는 실험실 면접과 심리치료에서의 침묵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두 종류의 침묵을 구분하였다. 하나는 반응잠복시간(reaction time latency)으로 이는 2자간 대화에서 한 사람이 발언을 종식한 시점에서 다른 사람이 발언을 시작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을 나타낸다. 이들이 이 침묵을 반응잠복시간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 침묵을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반응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침묵은 주도반응시간(initiative time latency)으로, 이는 2자간의 대화에서 한 사람의 발언 중간에 일어나는 침묵지속시간을 나타낸다.

Matarazzo 등(1967, 1968)에 따르면, 이들 두 종류의 침묵의 지속시간별 발생빈도는 실험실 면접과 심리치료 및 내담자와 치료자 모두에서 J의 거울형 이었다. 대부분의 반응잠복시간은 짧게는 1초에서 길게는 4.24초이며, 5초 이상 지속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주도반응시간의 길이별 발생빈도도 반응잠복시간에와

마찬가지로 J의 거울형 있었지만, 통상 반응잠복시간 길이의 두 배 이상이며 평균 4-7초 지속되었다(Matarazzo 등, 1968).

심리치료자들은 작업을 하면서 현저히 긴 반응잠복시간을 활용하며, 상담과정 연구에서는 5초의 침묵을 관례적으로 쓰는 것으로 보인다(예: Cook, 1964; Hargrove, 1974; Hill, 1978, 1981; Hill, Carter, & O'Farrell, 1983). 그러나 이들 연구자들 중에 의미 있는 침묵의 길이로 5초를 기준으로 삼는 논리적인 근거를 언급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Matarazzo 등(1967, 1968)의 침묵에 대한 기초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5초 이상 지속되는 침묵은 통상적인 언어적 관계를 깨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긴 침묵으로 어떤 과정 요소가 작용하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으므로 심리치료 연구에서 침묵의 기준을 5초로 삼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최근에 정신분석 분야에서는 컴퓨터의 발전에 힘입어 정신분석적 과정을 양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Mergenthaler와 Kächele(1988)는 심리치료 사례의 자료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Ulm Textbank를 만들어 심리치료 사례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는 Dahl(1979)의 기준에 따라 축어록을 작성한다. Dahl(1979)은 15초-1분의 말멈춤은 멈춤(pause)으로, 1분 이상에서 2분의 말멈춤은 침묵(silence)으로, 2분 이상의 말멈춤은 반올림 또는 반내림하여 분단위의 침묵(예: 3분 침묵)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침묵을 이렇게 구분하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정신분석 문헌에는 극단적으로 긴 침묵을 하는 내담자의 사례가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Khan, 1963; Liegner, 1974; Busch, 1978; Morgenstern, 1980; Dahl, 1988; Dahl, 1989; Coltart, 1991; Shreeve, 1991; Tenzer, 1992; Tibbles, Russell, 1992). Khan(1963)은 분석 초기에 연속 16회기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청소년 환자를 자신의 역전을 통해 이해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침묵하는 환자를 정신분석에서는 ‘침묵하는 환자(silent patient)’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논문에서 얼마의 시간길이 동안 침묵해야 ‘침묵하는 환자’라고 하는지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채 이들 환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침묵하는 환자”는 여러 시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특징지워지며, Coltart(1991)는 “전체 분석기간의 10%이하로 말하고 여러 회기 동안은 전혀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침묵의 길이를 다룬 이상의 개관 내용을 요약하면, 언어학에서는 가장 짧고 미세한 침묵의 정의를 하고 있는 반면, 정신분석에서는 침묵을 대단히 긴 시간길이로 정의한다. Matarazzo 등(1967, 1968)의 체계적인 침묵 연구를 고려한다면, 상담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부분의 상담과정 연구에서 취하는 5초를 기준으로 침묵을 정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5초를 기준으로 침묵을 범주화할 때 생기는 문제는 5초 이상이 되는 모든 침묵이 동일한 하나의 침묵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고려한다면 Dahl(1979)이나 Du

Bois 등(1993)과 같이 시간길이에 따라 침묵을 범주화하는 것이 현상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침묵을 길이에 따라 세분화한다면 어떤 길이로 나누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침묵의 소유자

상담연구에서는 침묵의 소유를 구분하여 범주화하려고 시도한다(예: Hill, 1978, 1981). 그러나 2자간의 대화에 침묵이 있을 때 이 침묵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내담자가 말을 한 다음 5초의 침묵이 있을 후에 상담자가 말을 하였다 고 해보자. 이 5초간의 침묵은 내담자가 시작 하였으므로 내담자의 침묵인가, 아니면 상담자가 침묵을 끝냈기 때문에, 또는 상담자가 말을 할 차례인데 말하지 않고 침묵하였으므로 상담자의 침묵인가? 또는, 침묵이 가능하려면 내담자가 침묵을 시작했을 때 상담자가 이를 허용 하여야만 가능하므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유 하는 침묵인가? 이 침묵을 내담자가 시작하였다는 점에 강조를 두면 내담자의 침묵이 될 것이고, 상담자가 종식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면 상담자의 침묵이 될 것이다. 또는, 침묵은 말과 말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쌍방이 공유 하는 말없는 공간이라는 입장을 지닌다면 침묵의 소유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담과정을 양적으로 연구하려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범주를 코딩해야 하고, 침묵의 소유를 따져서 상담자 또는 내담자의

침묵으로 그 소유를 귀속시켜야 연구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 침묵을 귀속시키는 기준이 다르다.

Hill(1978, 1981)은 침묵의 시작에 초침을 두어서, 그 침묵을 시작한 사람의 대화 상대자의 소유로 침묵을 귀속시켰다. 그래서 Hill은, 상대방자의 침묵을 “내담자의 말과 상대방자의 말 사이 또는 내담자의 말과 말 사이의 5초간의 말 멈춤(pause)”(1978, p. 467; 1981, p. 5)으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내담자의 침묵은 “상담자의 말과 내담자의 말 사이 또는 상대방자의 말과 말 사이의 5초간의 말멈춤”(Hill, 1981, p. 16)으로 정의하였다. Hill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침묵의 소유를 규정하였는지 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 소유의 정의는 언뜻 보기에 상식 밖의 정의 같은 느낌도 준다. 그러나 이 정의를 깊이 음미해 보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닌다. 먼저 상대방자의 침묵을 살펴보면, 내담자가 말을 끝내고 침묵을 시작하면 다음에 말을 할 사람은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묵은 상대방자의 침묵이라는 입장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내담자의 침묵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내담자가 말을 할 차례인데 내담자가 말을 안하거나 보류하고서 침묵을 하기 때문에 이 침묵을 내담자의 침묵으로 정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자의 말과 말 사이의 5초간격을 내담자의 침묵으로 규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상대방자가 말을 멈추고 침묵하면 이번에 말할 사람은 내담자인데, 내담자가 말을 안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담자가 지킨 침묵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내담자가 계속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상대방자가 다시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Matarazzo 등(1962, 1967, 1968)은 Hill(1978, 1981)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Matarazzo와 그의 동료들 및 이들의 침묵에 관한 정의를 채택하여 연구한 다른 연구자들(예컨대, Cook, 1964; Lauver, Kelley, & Froehle, 1971; Hargrove, 1974)은 침묵을 그것을 종식한 사람의 소유로 보았다(Goodman, & Dooley, 1976 참조). 그러니까 그 침묵을 누가 시작하였는가에 관계없이 그 침묵을 상대방자가 말을 시작함으로써 끝마쳤으면 상대방자의 침묵으로, 내담자가 말을 시작함으로써 끝마쳤으면 내담자의 침묵으로 보았다. 그러나, Matarazzo와 그의 동료들은 Hill(1978, 1981)처럼 침묵의 소유를 그렇게 엄격하여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침묵의 소유보다는 침묵의 발생맥락을 더 중시하여 침묵을 구분하였다. 즉, 이들은 화자전환을 할 때 발생한 침묵은 반응잠복시간(reaction time latency)이라고 불렀고, 한 사람의 말 중간에 발생한 침묵은 주도 반응시간(initiative time latency)이라고 이름 붙였다.

표1은 Hill(1978, 1981)과 Matarazzo 등(1962, 1967, 1968)의 침묵소유자의 정의를 비교한 것이다. 표1은 이해와 전달을 편하게 하기 위해 침묵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냈는가에 따라 4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각각의 침묵에 대해 Hill과 Matarazzo가 누구의 침묵으로 소유를 귀속시켰는지를 명시하였다.

표 1. 침묵의 소유자: Hill과 Matarazzo의 정의 비교.

침묵 시작 \ 침묵 종식	상담자	내담자
상담자	Hill: 내담자의 침묵 Matarazzo: 상담자의 주도반응시간	Hill: 내담자의 침묵 Matarazzo: 내담자의 반응잠복시간
내담자	Hill: 상담자의 침묵 Matarazzo: 상담자의 반응잠복시간	Hill: 상담자의 침묵 Matarazzo: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

표 1의 음영부분은 Hill과 Matarazzo의 침묵소유자 정의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내담자가 말을 끝내고 침묵을 시작하다가 침묵을 끝내고 다시 말을 계속할 경우(표1의 우측 하단), Hill은 이를 상담자의 침묵이라고 소유를 규정한 반면, Matarazzo는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으로 규정하였다. Matarazzo가 이를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으로 규정을 한 근거는, 내담자가 말을 마치고 침묵을 시작했는데 상담자가 계속 말을 안하고 보류하면(즉 침묵하면) 내담자가 발언의 주도권을 갖고 새로운 발언을 시작하게 되므로, 이 부류의 침묵은 내담자가 새로운 발언을 시작하기까지의 준비를 하는데 걸린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입장이다(Matarazzo 등, 1968). 이러한 설명은 상담자가 시작하고 종식한 침묵인 상담자의 주도반응시간(표1의 좌측 상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내담자가 말을 끝내고 침묵을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서 상담자가 말을 시작함으로써 침묵을 끝낸 경우(표1의 좌측 하단)는 Hill과 Matarazzo 모두 상담자의 침묵으로 규정을 하였다. Hill은 이 부류의 침묵을 상담자의 침묵으로 규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Matarazzo는 이 침묵이 내담자의 말에 대해 상담자가 반응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서 상담자의 반응잠복시간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논리는, 상담자가 말을 끝내고 침묵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내담자가 말을 시작함으로써 침묵을 끝낸 경우(표1의 우측 상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Hill(1978, 1981)의 상담자의 침묵은 결국 Matarazzo의 '내담자의 발언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잠복시간'과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을 합친 것이며, Hill의 내담자의 침묵은 Matarazzo의 '내담자 반응잠복시간'과 '상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을 합친 것이다.

침묵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침묵소유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몇가지 고려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는, 침묵의 소유자를 학자마다 달리 정의하고 있으므로, 침묵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려면 누구의 침묵 소유에 따라 정의된 침묵의 효과인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Hill 등(1983)은 12회의 단기상담을 연구하면서 상담자의 침묵 다음에 내담자의 통찰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하였고, Cook(1964)은 Matarazzo 등(1962)의 침묵소유자 정의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침묵이 상담의 성공과 관계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 두 연구에서의 침묵의 소유자는 외견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표1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두 연구에 포함된 침묵의 일부는 같은 침묵(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이고 일부는 다른 침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침묵은 상담자의 침묵이던 내담자의 침묵이던 상담자가 그 길이와 발생 맥락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 상담자의 처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내담자의 반응 잠복시간이나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조차도 상담자가 이를 허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상담자가 자신의 반응을 빨리 하면 내담자가 상담자의 말을 가로채는 경우(interruption)가 증가하며(Matarazzo 등, 1968), 면접자가 자신의 반응시간을 1초에서 5초와 15초로 늘일 때 후속 되는 반응 중에서 내담자의 주도반응 시간이 발생하는 비율이 0%에서 각각 25% 65%로 증가한다(Matarazzo 등, 1967, 1968). 따라서 이후의 침묵 연구는 누구의 침묵이냐보다는 어느 발생맥락에서의 침묵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어느 맥락에서 발생한 침묵이 내담자의 통찰이나 체험수준을 가장 많이 혹은 적게 가져오는가를 밝히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만이 상담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치료자가 침묵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침묵의 발생 현황

각 회기별 침묵의 발생빈도나 침묵의 소유자

별 또는 발생맥락별 침묵의 비율을 제시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Matarazzo 등(1967, 1968)은 전체 면담이나 치료회기를 일괄하여 반응잠복시간과 주도반응시간 각각의 침묵길이별 빈도만을 제시하였고, 발생맥락별 또는 소유자별 침묵 비율이나 회기별 침묵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침묵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면접에서 발생하는 모든 침묵 지속시간의 발생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그의 일차적인 관심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회기별 침묵의 발생 비율을 연구하려면 적어도 몇 초 이상 지속되어야 침묵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침묵의 길이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5초 이상을 침묵의 기준으로 삼은 최초의 연구자는 Cook(1964)이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5초 이상 지속된 모든 침묵 중에서 70%가 내담자가 종식한 침묵이었고 30%가 상담자가 종식한 침묵이었다.

Hill(1978)은 침묵을 포함한 언어반응유목의 상대적인 발생빈도를 보고하였다. 12개의 초기 면접에서 상담자의 침묵은 상담자의 전체 반응 중에서 2.24%였고, 회기의 초반에는 2.46%, 중반에는 2.69%, 후반에는 1.58% 이었으며 초중후반의 발생비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초기면접에만 국한된 것이므로, 치료과정 전체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Hill 등(1983)이 12회의 한시적 상담의 과정과 결과를 연구하면서 제시한 회기별 내담자의 침묵의 발생비율은 1회에 1%, 2회에 21%, 3회에 8%, 4회에 2%, 5회에 7%, 6회에 12%, 7회에 1%, 8회에 9%, 9회에 5%, 10회에 1%, 11회에 17%, 12회에 3%였고, 평균적으로는 7%

로 회기별 평균 발생 순위가 기술 54%, 단순반응 25%, 체험하기 12%에 이어 4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ll, 1983 표1 참조). 또한 전체 회기에서 평균적으로 회기 초반에는 2%, 중후반에는 11% 발생하였는데(Hill, 1983 표2 참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담자 침묵의 발생비율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회기 초반 1/3과 중후반 2/3의 침묵 비율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초기면접의 회기 전후반을 비교하였을 때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상담이 여러회 지속될 경우에는 회기내 전반에서 후반으로 진행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침묵이 증가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반면, 총12회 동안 진행된 상담에서 상담자의 침묵 반응은 초반 4회까지는 평균 4%, 5회에서 12회까지의 후기에는 3%로 전체 평균 4%였다. 즉, 내담자 반응 중에는 7%가, 상담자 반응 중에는 4%가 침묵반응이었다.

정방자(1986)는 Hill(1978, 1981)의 언어반응유목에 따라 상담자와 내담자의 반응을 유목화하였다. 침묵이 주된 연구 목적은 아니지만, 그의 연구는 Hill(1978, 1981)의 연구에서처럼 침묵과 관련된 자료를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30회기 동안 지속된 5사례에서 사례당 10회씩을 등간격으로 표집하여 얻은 50회기에서의 침묵반응의 발생비율은 내담자의 총반응 4170개 중에서 1410개(34%)로 내담자의 언어반응 중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았다(정방자, 1986, 표17 참조). 상담자의 침묵 반응의 발생비율은 상담자의 총반응 1293개 중에서 47개(4%)로 내담자의 침묵과는 달리 발생빈도가

매우 낮았고, 상담자 언어반응유목 중에서 가장 빈도가 낮은 직접적 지시 44개(3%)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정방자, 1986, 표18 참조). 그는 30회의 상담을 5구획으로 나누었는데, 상담진행에 따른 구획별 내담자의 침묵의 발생빈도(비율)가 각각 165(18%), 525(56%), 328(45%), 261(29%), 131(18%)로 조사되었고(정방자, 1986 표17), 이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역U자 모양이 된다. 상담진행에 따른 구획별 상담자의 침묵발생빈도는 각각 14(3%), 3(1%), 30(13%), 0(0%), 0(0%)으로 대부분의 침묵이 상담 중반기인 제3구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방자, 1986 표18).

Hill(1978, 1981)과 정방자(1986)의 연구에서 보고된 침묵의 비율을 비교하면, 상담자의 침묵 비율은 Hill과 정방자의 연구에서 모두 약 4%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3.1%로 조사된 방기연(1991)의 연구와도 비슷한 수치이다. 그러나, 내담자의 침묵반응의 비율은 Hill과 정방자의 연구가 모두 Hill의 언어반응유목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ill(1983)은 평균 7%였고 정방자(1986)는 평균 34%나 되고 있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로 Hill과 정방자가 사용한 사례의 치료적 입장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Hill은 내담자 중심의 지지적인 치료를 하였고, 정방자는 정신역동적인 입장에서 치료를 하였다. 정신역동적 치료는 정신분석의 영향으로 치료자의 절제규칙을 중시하므로 침묵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치료자가 절제규칙을 사용하여 발언을 자제한다면 내담자의 침묵보다는 상담자의 침묵이 증가하여야

할 것인데 정방자의 결과는 내담자의 침묵이 많으므로 이 결과는 치료 입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로 Hill은 12회의 한시적 상담을 하였고 정방자는 30회의 비교적 긴 상담을 하였다. 그러나 상담을 길게 한다고 내담자의 침묵이 많아질 것 같지는 않으며, 정방자의 사례에서 12회까지의 침묵 비율만 고려하여도 여전히 Hill보다 내담자의 침묵 비율이 현저히 높으므로 이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코딩 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방자가 논문의 부록에 제시하고 있는 Hill(1978, 1981)의 언어반응유목의 한글 번안에는 원래의 Hill의 상담자의 침묵과 내담자의 침묵이 부분적으로 뒤바뀌어 번역되어 있다.⁴⁾ 그러니까 정방자는 Hill의 상담자의 침묵의 일부를 내담자의 침묵으로, 내담자의 침묵의 일부를 상담자의 침묵으로 코딩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방자(1986)가 제시한 수치에서 침묵 반응

4) 비교를 위해 Hill(1981)의 원문과 이에 대한 정방자(1987)의 한글 번안을 제시한다.

(1) 상담자의 침묵

- Hill: "A pause of 5 seconds is considered the counselor's pause if it occurs between a client statement and a counselor's statement or within the client's statement"(p.5)

- 정방자: "상담자의 말과 말 사이에 5초간의 휴식이 있으면 이것을 상담자 휴식이라고 한다"(p.83)

(2) 내담자의 침묵

- Hill: "A pause of 5 seconds is considered the client's pause if it occurs between the counselor's statement and a client's statement, within a counselor's statement, or immediately after a client's simple response"(p.16)

- 정방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말 사이에, 또 내담자의 말과 말 사이에 5초의 휴식이 있거나 또 내담자가 단 순반응을 한 직후에 5초의 휴식을 보이면 이것을 하나의 5초 휴식으로 간주한다(p.95)

만을 가려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침묵의 비율을 계산하면 전체 침묵반응(내담자 1410개, 상담자 47개) 중에서 내담자의 침묵은 96.7%이고, 상담자의 침묵은 3.2%로 대부분의 침묵이 내담자의 침묵이고 상담자의 침묵은 매우 적다. 이 결과는 내담자의 침묵과 상담자의 침묵이 각각 70%와 30%로 조사된 Cook(1964)의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Sharpley와 Harris(1995)은 인지행동치료 초기면접 사례를 대상으로 모든 침묵의 발생비율을 제시하였는데, 면접내에 발생한 모든 침묵 중에서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이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담자 반응잠복시간 30%, 상담자 반응잠복시간 15%, 상담자 주도반응시간 6%의 순이었다. 이를 Hill(1978, 1981)의 침묵소유자 정의에 따라 계산하면, 상담자의 침묵 64% 내담자의 침묵 36%이며, Matarazzo 등(1967, 1968)의 침묵소유자에 정의에 따라 분류하면 상담자의 침묵 21% 내담자의 침묵 79%로 각각이 30%와 70%로 보고된 Cook(1964)의 조사와 근접한다.

정방자(1986)의 수치가 Cook(1964) 및 Sharpley 등(1995)의 보고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첫째로 치료적 입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정방자의 사례는 30회의 한시적인 역동적 치료 사례이고 Cook(1964)의 사례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내담자중심 치료 사례이며, Sharpley 등(1995)은 인지치료 첫면담 사례이다. 그런데 Cook(1964)과 Sharpley 등(1995)의 수치는 사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둘째는 두 연구의 침

목소유자의 정의의 차이를 들 수 있다. Cook(1964)은 Matarazzo 등(1962)의 정의를 따라 침묵소유를 코딩하였으므로 내담자의 침묵은 내담자의 반응잠복시간(Hill의 내담자의 침묵)과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Hill의 상담자의 침묵)이다. 그런데, Sharpley 등(1995)의 수치를 Hill(1981)의 소유개념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도 정방자(1986)의 수치와 여전히 큰 차이가 난다. 정방자는 기본적으로 Hill(1978, 1981)의 정의를 따랐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정방자는 Hill의 상담자 침묵과 내담자 침묵을 부분적으로 뒤바뀌 번역하였기 때문에 정방자의 수치와 다른 연구들간의 차이는 각 연구에서 사용한 침묵의 정의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금명자(1994)도 역시 Hill의 언어반응유무를 사용하였는데, 총8사례에서 수집된 30회기의 초·중·말 모두에서 상담자의 침묵이 0.0%이며 단1개의 상담자 침묵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침묵을 무시하고 축여록을 풀었거나 언어반응유무를 코딩할 때 침묵을 체계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계분석을 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반응수를 1:1로 맞추는 과정에서 침묵은 버리고 언어반응만 선택하였을 수 있다.

이상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침묵발생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 지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침묵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Sharpley 등(1995)의 연구에서처럼 침묵종류별로 발생빈도를 제시한다면 연구간 상호 비교가 가능할 수 있고 연

구 결과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침묵의 발생현황을 보고한 연구가 매우 드물고, 보고하였더라도 침묵 발생비율이 체계적이거나 일관적이지 않다. 세 번째의 문제는 주로 국내 연구에 국한된 문제로 Hill(1978, 1981)의 침묵을 원문과 달리 번역하여 사용한 점이다. 정방자(1986)와 금명자(1994)뿐만 아니라 방기연(1991)도 상담자의 침묵을 “상담자와 말과 말 사이의 5초간의 휴식”이라고 Hill(1978, 1981)의 원문과 달리 번역하였는데, 이는 원래는 Hill(1981)의 내담자의 침묵의 일부이다(각주1 참조).

심리치료에서의 침묵의 발생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저선은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Matarazzo 등(1967, 1968)이 침묵길이별 침묵 발생빈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5초 침묵을 연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침묵종류별 침묵발생율에 대한 기저선 뿐만 아니라 치료적 입장에 따른 침묵발생 기저율이 확립된다면 코딩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준거로 이용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침묵의 효과나 작용기제를 밝히는 보다 의미 있는 후속 연구들이 자극될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

심리치료에서의 침묵의 효과

이 부분에서는 침묵을 독립변인으로 삼아서 침묵의 효과를 검증하려고 시도한 연구를 중심으로 개관할 것이다.

심리치료에서 침묵의 효과에 관한 최초의 연구를 한 사람은 Cook(1964)이다. 그는 내담자 중심 치료에서 침묵과 치료적 성공 및 상담과정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침묵 비율이 3% 이하인 표집은 보다 비성공적인 상담의 것이었고, 침묵 비율이 4% 이상인 표집은 주로 성공적인 상담의 것으로, 침묵의 비율과 상담의 성공-실패가 독립적이지 않았다. 침묵 비율과 과정척도(Process Scale: Rogers & Rablin, 1960)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그 관계는 역U자 형태였다. 즉, 최대의 과정평정은 4-20%의 침묵 비율이 있는 표집에서 일어났고, 낮은 과정 평정은 3% 이하의 낮은 침묵 비율 또는 21% 이상의 높은 침묵 비율과 상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ook(1964)은 Halkedes(1958)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내담자의 성격 변화와 가장 관련이 높은 치료자의 태도로 밝혀진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 수용 및 진실성간의 높은 상관과 더불어 이들 세가지 치료자의 태도와 침묵 비율의 공변은 침묵 비율에 의해 직접 측정되어지는 하나의 기본 요소를 자극하여 이끌어내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하였다.

Cook(1964)은 내담자가 종식한 침묵만을 상담성과 및 과정과 연결시켰는데, 내담자가 종식한 침묵에는 두 가지의 침묵 즉, 내담자의 반응잠복시간과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Cook(1964)의 결과로는 내담자가 종식한 두 종류의 침묵 중 어떤 침묵이 상담의 성공 및 과정척도와 보다 더 관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또한 Rogers 등(1960)의 과정척도는 정서와 개인적 의미, 체험하기, 비

진실성(incongruence), 자기의 전달(communication of self), 체험의 해석, 문제와의 관계성, 관계맺는 태도 등의 7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Cook(1964)은 이 척도의 전체점수와 침묵간의 상관을 보았으므로 어떤 침묵이 어떤 과정적 요소와 관계되어 치료성과를 가져왔는지 역시 알기가 어렵다.

Hargrove(1974)는 심리치료에서 치료자의 언어적 행동의 시간적 특성과 공감적 이해의 전달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치료자의 언어적 행동의 시간적 특성은 Matarazzo와 Wien(1967)이 면접에서의 시간사용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밝혀낸 네 가지 행동인 발화지속시간, 반응잠복시간(reaction time latency), 주도반응시간(initiative time latency) 및 중첩(overlap) 또는 말방해(interruption)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침묵행동이 공감의 최고 예언자로 밝혀졌다. 그리고, 공감의 최대 예언자는 치료자의 반응잠복시간(Hill의 상담자의 침묵)과 '환자가 침묵할 때의 치료자의 침묵(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으로 Hill의 분류로는 상담자의 침묵)' 그리고 중첩(말방해)의 순이었는데, 앞의 두 변인은 공감과 정적 상관이었고, 중첩(말방해)은 공감과 부적 상관이었다. 그리고, 이들 변인이 공감점수의 58%를 예언하였다. 즉, 높은 공감집단에 속하는 치료자는 낮은 공감집단에 속하는 치료자에 비해 환자에게 반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환자에게 표현할 시간을 더 주며, 말을 가로채는(interruption) 시간이 더 적게 나타남으로써 침묵행동이 치료자의 높은 공감적 이해수준을 반영하지만, 그 관계가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

Rowland-Morin과 Carroll(1990)은 의사의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과 환자의 만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환자의 만족이 의사의 면접 스타일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다 면 그러한 효과를 산출한 면접자의 스타일 속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변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구체적인 언어 변인의 관점에서 의사의 전반적인 면접 스타일을 규명하고 이들 변인 중 어느 것이 환자의 만족과 유의미하게 관계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52명의 성인(22-82세) 환자와 5명의 의사(physician)와의 첫면담을 녹음하고, 의료면접 만족척도(Medical Interview Satisfaction Scale: Wolf, Putnam, James, & Stiles, 1978)를 사용하여 환자의 면접만족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첫면접에 대한 만족점수 변량의 27%가 '잠복반응시간', '단어목록의 상호적 사용을 통해 결정되는 언어적 상보성의 유무', '의사와 환자가 유발하는 말방해간의 차이'라는 세가지 변인으로 설명되었다. 침묵시간과 환자의 만족 사이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은 없었으나 언어적 상보성과 환자의 만족간, 그리고 반응 잠복시간과 언어적 상보성간의 유의미한 상호 작용 효과는 침묵이 환자의 만족과 언어적 상보성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시사한다고 이들은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개관한 3개의 연구는 모두 실제 심리 치료사례를 대상으로 침묵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owland-Morin과 Carroll(1990)의 연구는 심리치료 사례는 아니지만 환자와 일반의사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의 의료면접이므로 심리치료에 등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로, 이들 연구는 모두가 상관연구로 치료의 과정이나 결과에 미치는 침묵의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한 것이 아니므로 침묵과 과정이나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알기는 어렵다. 둘째로, 침묵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서 각각의 침묵의 종류에 따른 기여도를 알기가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Hargrove는 구체적인 침묵의 종류를 밝히고 있지만, Cook(1964)은 내담자가 종식한 침묵을 일괄처리하였는데, 여기에는 내담자의 반응잠복시간과 내담자의 주도 반응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Rowland-Morin과 Carroll(1990)은 의사와 환자의 반응잠복시간을 일괄처리 하였다.

상담과정과 침묵을 연결시킨 연구들

침묵을 포함시킨 대표적인 언어반응유목체계에는 Hill(1978, 1981)의 상담자 및 내담자 언어반응유목이 있다. 그 이전의 여러 언어반응유목체계에는 침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예: Snyder, 1945, 1963; Bales, 1950, 1969; Strupp, 1960; Ivey, 1971; Kagan, 1972; Danish & Hauer, 1973; Goodman & Dooley, 1976개관 참조). Goodman과 Dooley(1976)는 기존에 개발된 언어반응유목체계를 개관하면서, 상호배타적인 상담자의 언어반응으로 질문, 조언, 침묵, 해석, 반영 및 노출의 6개를 구분함으로써 비로소 침묵을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Goodman과 Dooley(1976)는 언어반응유목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 6개의 언어반응유목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등의 기초 연구를 하지는 않았다.

Hill(1978)은 기존의 여러 언어반응유목체계들이 지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상담자 언어반응 유목을 개발하였는데, Goodman과 Dooley(1976)의 분류를 참고하여 침묵을 포함하였고 상호배타적인 상담자의 언어반응을 1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Hill의 상담자 언어반응유목체계는 개발된 언어반응유목체계 중에서 침묵이 포함된 최초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초기면접 12사례를 대상으로 상담자 언어반응유목의 빈도를 제시하였는데(본 논문의 '침묵의 발생 현황' 참조), 침묵은 평정자간 일치도가 100%였고, 상담자 언어반응의 발생빈도 순위로는 10번째였다. 그 후 Hill(1981)은 내담자의 언어반응유목체계도 개발하여 상담자의 언어반응유목체계와 함께 이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Hill(1978, 1981)이 상담자 언어반응유목체계와 내담자 언어반응유목체계를 개발한 이후 이들 유목체계를 사용한 많은 상담과정 연구들이 나왔다.

Hill과 Carter 및 O'Farrell(1983)은 Hill(1981)의 언어반응유목에 따라 12회의 한시적 단일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연구는 침묵에 직접적인 초점을 두지는 않았으나 침묵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첫째로 모든 회기의 초반 1/3과 후반 2/3를 비교하였을 때 내담자의 활동수준(상담자와 내담자의 총 발언단어에서 내담자의 발언단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고, 체험하기, 통찰, 침묵은 증가하였다. 둘째로 회기내 초반 1/3과

후반 2/3의 상담자의 반응을 비교하였을 때 가벼운 격려(minimal encourager)는 감소한 반면, 침묵과 해석은 증가하였다. 세째, 좋은 회기와 나쁜 회기를 비교하였을 때, 나쁜 회기에서의 내담자 반응은 단순반응, 체험, 침묵은 적고 기술과 활동은 많았다. 나쁜 회기는 다른 회기에 비해 초반 1/3에 기술과 활동이 더 많았고 이러한 패턴이 회기 후반에도 지속되었다. 반면 좋은 회기에서의 내담자 반응은 문제의 기술과 활동은 적고, 체험, 통찰, 침묵은 많았다. 네째, 나쁜 회기에서의 상담자 반응은 해석과 침묵이 적었다. 다섯째, 상담자의 언어행동에 연계된 내담자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체험은 침묵 후에 가장 많이, 폐쇄질문 후에 가장 적게 일어났다. 통찰은 드물게 일어났는데, 통찰이 일어났을 때는 상담자의 침묵 후 첫째 단위에서, 그리고 개방질문과 해석 후 둘째 단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Hill 등(1983)의 연구는 치료자의 침묵이 내담자의 체험하기 수준을 높이고 통찰을 가져오는데 공헌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통찰은 성공적 치료의 지표로 사용되며(정방자, 1986), 내담자가 보다 큰 자기이해와 자기통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Dewald, 1969).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Hill 등(1983)의 연구 결과는 침묵이 치료의 성공과 관계되며 침묵의 비율이 정서적 체험 및 통찰을 주내용으로 하는 Rogers(1960)의 과정적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밝힌 Cook(1964)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그런데, Cook(1964)과 Hill 등(1983)이 사용한 침묵은 서로 다른 침묵이다. Cook(1964)의 침묵은 내담자가 종식한 침

목으로 이는 달리 말하면 내담자의 반응잠복시간과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이다. Hill(1983)의 상담자 침묵은 내담자의 말과 상담자의 말사이의 침묵(즉, 상담자의 반응잠복시간)과 내담자의 말과 말 사이의 침묵(즉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이다. 두 연구에서 공통된 침묵은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만으로는 각각의 종류의 침묵이 통찰에 기여하거나 관계되는 상대적인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정방자(1986)는 Hill 등(1983)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정방자의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해석’이 상담자의 다른 어떤 반응보다도 내담자의 ‘통찰’을 유의미하게 많이 유발하며, 상담자의 ‘직접적 지시’와 ‘시인·안심’ ‘정보’ 등도 ‘한정질문’이나 ‘침묵’보다는 ‘통찰’을 많이 유발하고 있다”는 것과 “상담자의 ‘반영’, ‘시인·안심’ 등도 ‘침묵’보다 내담자의 ‘경험 반응’을 유의미하게 많이 유발한다”(p. 37)는 것이다. 그런데, Hill(1983)의 결과에서는 통찰 반응을 많이 유발하는 상담자의 반응은 침묵, 개방질문(탐색), 직면이었다.

정방자(1986)는 Hill(1983)과 자신의 연구와의 상반된 결과가 두 연구의 사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Hill의 사례는 12회의 한시적 상담이며, 자신의 사례는 30회로 통찰이 후반기로 가면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한다(초반의 6%에서 22,23회에는 9%, 29,30회에는 14%).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정방자는 Hill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침묵을 달리 번역하여 코딩하였고, 내담자의 전체 반응 중에서 침묵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이 34%로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본 논문의 ‘침묵의 발

생 현황“ 참조). 더 나아가 정방자는 상담자의 침묵 다음에 제기되는 내담자의 침묵반응의 비율이 예비 연구에서는 30%, 본 연구에서는 9%나 유발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연계쌍은 현실적으로 발생불가능한 조합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비연구와 본연구의 수치의 차이도 지나치게 크다. 이러한 사실들은 정방자가 보고한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Wampold와 Kim(1989)은 Hill 등(1983)의 연구에 사용된 사례를 연계분석으로 재분석하였다. 연계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자주 발생하는 상담자의 반응에 연계되는 내담자의 반응 10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침묵과 관계되었다. 상담자의 침묵과 내담자의 기술반응간의 연계쌍은 12회기 중 세 회기에서 부적 발생확률 즉, 우연발생확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확률로 발생하였고 정적 발생확률이 나타난 회기는 없었다. 상담자의 침묵과 내담자의 체험 반응간의 연계쌍은 12회기 중 다섯 회기에서 정적 발생확률 즉, 우연발생확률보다 유의하게 높은 확률로 발생하였고 부적 발생확률로 나타난 회기는 없었다. 내담자의 반응과 연계된 상담자의 반응에서는 9개의 연계쌍이 드러났는데, 침묵이 관련된 연계쌍은 내담자의 체험반응과 상담자의 침묵 쌍으로 12회기 중 세 회기에서 정적 발생확률로 나타났고 부적 발생확률로 나타난 회기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침묵 다음에 내담자는 기술반응은 적게하고 체험반응은 많이 하며, 내담자의 체험반응은 상담자의 침묵반응과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성경(1988)은 1-3회까지의 초기상담을 대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과 내담자가 평정한 상담의 순조로움 및 깊이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담의 순조로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내담자의 언어반응은 단순반응과 침묵이었는데, 단순반응은 순조로움과 부적($r=-.45$)으로, 침묵반응은 순조로움과 정적($r=.40$)으로 관계되었다. 상담의 깊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내담자의 언어반응은 통찰과 침묵이었고, 이들 두 반응은 모두 상담의 상담의 깊이와 정적(각각 $r=.40, .42$)으로 관계되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침묵반응은 내담자가 평정한 상담의 순조로움과 깊이 모두에서 정적으로 상관되었다.

방기연(1991)은 10명의 내담자의 1회에서 4회까지의 상담에서 얻어진 21회기 중에서 1,2회기를 상담 전반기, 3,4회기를 상담 후반기로 구분하여 작업동맹형성과 Hill(1978, 1981)의 언어반응유목으로 평정한 상담자의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내었다. 그 결과, 전반기에는 침묵(평균 발생빈도 5.9개, 3.1%)만이 유일하게 작업동맹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작업동맹의 하위척도인 '유대', '목표', '과업'과도 일관되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얻어졌다. 그러나 상담후반기(3,4회)에서는 침묵과 작업동맹간에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대신 직접적 지시(평균발생빈도 2.38개, 1.3%)만이 작업동맹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방기연은 "대체로 전반적인 작업동맹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응이 '침묵'에서 '직접적 지시'로 변하고 있다"(p.22)고 결론을 지었다. 그런데, 방기연은 Hill의 상담자의 침묵을 "상담자의 말과 말 사

이의 5초간의 휴식"(p. 53)이라고 Hill의 원문과는 달리 번역하였는데 이 침묵은 사실은 Hill(1981)의 내담자 침묵이며(각주1 참조), Matarazzo 등(1967, 1968)의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이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 상담전반기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다.

방기연(1991)의 연구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상담전반기에는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 회기평가(순조로움과 깊이)가 계산된 12개의 상관 중 11개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상담후반기에는 그 어디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상담전반기에는 침묵만이 작업동맹과 유일하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상담후반기에는 직접적지시만이 작업동맹과 유일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상담자의 침묵이 내담자의 작업동맹과 내담자가 평정한 순조로움, 깊이 및 전체적 회기평가와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내담자의 침묵반응이 내담자가 평정한 상담의 순조로움과 깊이 모두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유성경(1988)의 결과와 일치하며, 내담자가 종식한 침묵이 상담 성공과 관계된다는 Cook(1964)의 연구, 침묵과 환자의 만족간의 관계를 보고한 Rowland-Morin 등(1990)의 연구, 및 침묵과 라포의 지각간의 정적관계를 보고한 Sharpley 등(1995)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다.

방기연(1991)의 연구는 사례수가 적고, 1-4회까지의 초기상담만 포함시켰으며, 전문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상담자에 의한 상담사례라

는 점으로 인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는 제한이 있으며, 침묵과 직접적 지시의 발생빈도가 낮아서 상관계수가 실제보다 과장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White와 Fichtenbaum 및 Dollard(1964)는 정신과 입원 환자의 조기종결율과 그들의 초기 접수면접 중에 일어난 침묵의 양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침묵이 많을수록 더 많은 조기종결율과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나, 침묵이 성공적 상담과 관계된다는 Cook(1964)과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White 등(1964)의 연구의 주목적은 조기종결의 예언척도를 만드는 것이었고, 침묵은 예언척도에 포함된 하나의 하위 요소이므로 이들의 연구로 침묵이 조기종결에 기여하는 부분을 알기는 어렵다.

최근에, Sharpley와 Harris(1995)는 인지행동치료의 초기면접에서의 침묵과 라포(rapport)의 지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내담자는 면접 중에 1 분(minute)마다 라포를 평정하였다. 상담자 언어반응은 Hill(1978)의 것을, 내담자의 언어반응은 Stiles과 Sultan(1979)의 것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중간 라포로 평정된 분(minute)에서보다 매우 높은 라포로 평정된 분에서 침묵의 발생이 의미 있게 많아서 침묵이 증가된 라포의 지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라포가 높게 평정된 분(minute)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화자조합은 내담자-치료자 조합 즉, 내담자가 침묵을 시작하고 치료자가 종식하는 것으로 침묵이 종식되기 전에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최소한 5초 동안 침묵에 머물러 있도록 허용하는 상황이었다. Sharpley와 Harris(1995)는 내담

자가 시작한 침묵이 라포의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결론짓고서, 침묵에 대해 일부 치료자들이 보이는 불안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Sharpley 등(1995)의 연구는 침묵을 종류별로 세분하여 라포와 관련지으려고 시도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지만, 훈련 중인 소수의 인지행동치료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의 문제를 다루긴 하였다지만 표준내담자를 사용하였으며, 침묵전후의 화자조합과 언어반응 및 라포간의 관계를 통계적인 유의도보다는 빈도로만 비교한 탐색적인 연구라는 제한이 있다.

교육장면에서의 침묵의 효과

또 다른 분야에서의 침묵 연구는 강의에 침묵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보려고 한 시도들이다. 이 분야의 가장 개척적인 연구자는 Rowe(1974a,b)이다. Rowe(1974b)는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응답 그리고 이에 대한 교사의 반응 사이에 주어지는 대기시간이 학생들이 자신의 응답을 생각하고 인지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침묵을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대기시간이란 발언과 발언사이에 존재하는 말없는 시간간격인데, Rowe는 이를 교사의 대기시간으로 개념화하였다.

표2. 대기시간1과 대기시간2는 질문 다음(대기시간 1)과 반응 다음(대기시간2)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침묵들임(Rowe, 1974b, p. 265)

교사의 질문	대기시간1 (wait time)	학생의 응답	대기시간2 (wait time)	교사의 반응
--------	-------------------	--------	-------------------	--------

Rowe(1974a)는 교실에서의 발화의 질이 발화자를 가르치는 시간간격(교사의 대기시간)과 관계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Rowe(1974a)는 과학 수업에서 교사가 대기시간을 증가시켰을 때 학생의 학업성취가 증진되었고, 학생의 발화 중에서 학생의 대답 시간, 추론적 대답의 빈도, 학생간 자료비교의 빈도, 증거추론적 언급의 빈도, 학생의 질문 빈도 등이 증가하였고 응답실패율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Tobin(1980)과 Tobin과 Capie(1983)는 평균 3-5초의 대기시간을 사용한 교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담화가 개선되었고 학생의 성취가 증가되었음을 경험적으로 밝혀, Rowe(1974a)의 연구를 반복검증하였다.

Tobin(1984)은 이전의 연구를 정교화시켜서, 교사가 연속된 수업에서 평균 3-5초의 대기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의 대기시간 상의 변화, 교사의 대기시간 변화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특성과 학생의 성취 상의 변화, 학생과 교사의 언어적 특성과 학생의 성취와의 관계 등을 알아보려 하였다.

교사에게 3-5초의 대기시간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대기시간에 대해 매번의 수업이 끝난 다음 피드백을 주었을 때(waiting feedback group) 교사들은 첫 번째 수업의 평균 1.9초에

서 일곱 번째 수업의 평균 4.4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선형 추세로 대기시간을 증가시켰고, 7개의 연속적 수업에서 평균 3.2초의 대기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대기시간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 통제집단의 교사의 평균 대기시간은 0.9초였고 수업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교사는 대기시간을 꽤 용이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대기시간을 증가 및 유지시키는데 피드백이 주요하였다.

Tobin(1984)은 교사와 학생간의 언어반응을 구조화하기(structuring), 간청하기(soliciting), 대답하기(responding), 반응하기(reacting)의 네 범주로 구분하고, 학생의 발화에 즉시적으로 이어지는 교사의 발화를 모방(mimicry), 낮은 수준의 반응하기, 높은 수준의 반응하기 및 탐색하기(probing)로 구분하였다. 구조화하기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시발 혹은 종식함으로써 후속 행동이나 수행을 위한 맥락을 확립하는 발언이다. 간청하기는 적극적 언어적 반응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질문과 지시가 가장 흔한 간청하기의 형태이다. 대답하기는 간청하기와 교호적 관계를 지닌 발언으로 그것들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난다. 반응하기는 앞에서 말한 것을 명료화, 종합, 확장, 평가함으로써 이전의 발언을 수정하는데 기여하는 발언이다. 낮은 수준의 반응하기는 Hill(1978, 1981)의 가벼운 격려에 해당하는 교사의 반응들이다(예: 그래, 으음 등). 높은 수준의 반응하기는 교사의 정교화된 발언으로 확대된 평가적 언급, 대안의 제시, 설명, 정교화, 명료화, 촉진, 부언설명, 격려 등이 포함된다. 모방하기는 교사가 이전 학생의 담화의 전부 또는 부분을 반

복합 경우에 해당된다. 탐색하기는 학생의 담화에 뒤이은 교사의 간청하는 발언을 의미한다.

교사가 대기시간을 증가시켰을 때 통제집단에 비해 학생 발언의 평균 길이는 의미 있게 길었고, 교사 발언의 평균 길이는 의미 있게 짧았으며, 5분간의 교사와 학생의 발언수는 적었다. 즉, 대기시간 피드백 집단의 학생들은 발언하는 횟수는 적었지만 일단 발언을 시작하면 길게 말을 하였다. 또한 교사의 분당 간청하기의 수는 상당히 적었지만 간청하기의 비율은 높았고, 반응하기의 비율은 의미있게 적었으며, 구조화하기의 비율은 의미있게 컸다. 학생의 발언 직후의 교사의 탐색하기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교사의 흉내내기의 비율과 낮은 수준의 반응하기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분당 발언수는 학생의 누적성취와 부적으로, 학생의 반응하기 비율은 누적 성취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시간 피드백 집단의 교사들이 학생의 후속적 정보입력(input)을 얻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증가된 침묵이 학생과 교사의 인지적 처리를 위해 사용된다는 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다. 분당발언수와 누적성취간의 부적 상관은 단위시간당 자주 짧게 발언을 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발언에 집중을 하고 적절한 응답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obin(1984)의 연구는 교사의 침묵사용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언어반응의 외적특성과 범주 및 누적된 성취만을 비교하였고, 언어반응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지 않았다. 교사의 대기시간이 학생의 인지적 정보처리에 유용하게 사

용되는지는 학생의 언어반응의 질적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Ruhl과 Hughes 및 Gajar(199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효율을 증진시키는 침묵 절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통한 강의 중에 논리적 분절에 맞게 3개의 2분간 멈춤(pausing)을 끼워넣었다. 그 결과, 멈춤절차가 즉각적 자유회상 및 객관적 검사추정치상의 수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장기적 자유회상은 증진시키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들은 단기 기억의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이하는 것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말도록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하였다.

Ruhl 등(1990)의 연구는 비디오 강의를 실제의 교실 강의와 비교할만한가 하는 일반화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침묵절차는 학습장애자와 일반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이며, 시간이나 특별한 노력의 투자 없이도 교수법을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권고할만하다.

침묵을 강의의 효과와 관련시킨 이상의 연구들은 침묵이 인지적 처리를 하거나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역시도 일종의 정보처리 과정이며, 내담자는 좀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예컨대, 통찰이나 체험하기)을 하는데 더 많은 침묵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업에서의 침묵의 효과는 교사와 학생집단간의 1대 다수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리치료와 같은 2자간의 대화에 그 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침묵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

Matarazzo와 그의 연구팀은 침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하였다. 이에 대한 기초 연구로, 면접자의 반응잠복시간이 훈련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Matarazzo, Hess & Saslow, 1962), 개인의 면접에서의 발화와 침묵행동은 이들 발화 특성에서의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5분, 7일, 5주 및 8개월 간격의 검사-재검사에서 상당히 신뢰로운 것으로 증명되어(Saslow & Matarazzo, 1959) 침묵에 관한 그들의 후속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Matarazzo와 Wien(1967)은 내담자의 말과 침묵의 지속시간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의 초언어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일련의 광범위한 체계적인 준실험적 연구를 하였다. 면접자의 반응잠복시간을 1-5-1초 및 5-1-5초의 순서로 증가 또는 감소시켰을 때 피면접자는 면접자의 반응잠복시간과 상응하여 자신의 반응잠복시간을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후속연구(Matarazzo, Wiens, Matarazzo, & Saslow, 1968)에서 면접자가 5-10-5초, 10-5-10초, 5-15-5초로 반응잠복시간을 변화시켰을 때도 그리고, 실제 심리치료 5사례 중 3사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Matarazzo 등(1968)은 면접자가 반응잠복시간을 변화시킬 때 이에 상응하여 내담자의 반응잠복시간이 변화되는 이러한 현상을 동시성(synchrony)이라고 불렀고, '반응잠복시간 동시성'이라는 과정변인이 심리

치료에 작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Matarazzo와 Wiens 및 Saslow(1965)가 발견한 또 하나의 변인은 주도반응시간이다. 이들은 면접자의 반응잠복시간을 증가시켰을 때 피면접자의 발언과 발언 사이에 침묵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주도반응시간이라고 이름붙였다. 후속연구(Matarazzo 등, 1967, 1968)에서, 면접자가 반응잠복시간을 1초에서 5초와 15초로 증가시켰을 때 후속되는 피면접자의 반응에서 주도반응시간이 0%에서 각각 25%에서 65%로 증가하였다. 이들이 개인의 발언 사이에 발생하는 침묵을 주도반응시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피면접자가 말을 하었는데 면접자가 반응을 하지 않거나 보류하면(즉 반응시간을 길게 가지면) 내담자는 면접자의 반응시간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시 발언주도권(initiative)을 갖고서 말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종류의 침묵은 주도발언을 만들어 내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Matarazzo 등(1968)이 실제 심리치료 5사례를 대상으로 면접자의 반응잠복시간의 함수로 피면접자의 주도반응시간이 변화하는지 상관을 내었을 때는 모두 정적인 방향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이 치료자의 반응잠복시간 이외의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Matarazzo와 그의 동료들이 두 종류의 침묵을 밝혀낸 이후 이를 독립변인으로 삼은 여러 연구가 자극되었다. Cook(1964)은 내담자에 의해 종식된 침묵(내담자의 반응잠복시간과 내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의 비율이 상담의 성패와

관계된다는 것을 밝히고 최적의 침묵 비율이 얼마인지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Hargrove(1974)는 심리치료에서 치료자의 언어적 행동의 시간적 특성과 공감적 이해의 전달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Matarazzo 등(1968)이 밝혀낸 4가지 변인인 발화지속시간, 반응잠복시간, 주도반응시간, 중복(overlap) 또는 말방해(interruption)를 사용하였다.

Lauver와 Kelley 및 Froehle(1971)는 Matarazzo & Wien(1967)의 연구와는 역방향으로, 상담자의 말과 침묵행동에 미치는 내담자의 침묵행동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박사과정 상담훈련생을 상담자(피험자)로 하여 Matarazzo 등(1967, 1968)의 실험설계를 사용하여 가짜 내담자로 하여금 1-15-1초와 15-1-15초로 반응잠복시간을 조작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의 반응잠복시간은 내담자의 반응잠복시간의 변화와 정확히 일치했으며, 상담자의 주도반응시간도 내담자의 반응잠복시간에 따라 반응잠복시간과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내담자의 반응잠복시간이 가장 긴 시점에서 상담자의 주도반응시간의 최대빈도를 보였다.

Lauver 등(1971)의 연구는 훈련 중인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침묵에 좌우됐을 수도 있다. 노련한 상담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내담자의 침묵과 상담자의 발언수준이 독립적일 수 있다. Kächele(1983)는, 실패한 심리치료에서는 분석가와 환자의 발언수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성공적인 심리치료에서는 분석가와 환자의 말 수에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성공적 심

리치료에서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침묵이나 발언량에 좌우되지(휘말리지) 않음을 시사하며, Lauver 등(1971)의 연구가 상담훈련생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침묵에 휘말려 말을 많이 하게 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Lauver 등(1971)의 연구는 침묵에 있어서 치료자가 통제하지 못하는 내담자의 몫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인다.

Matarazzo 등(1965, 1967, 1968)은 2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침묵의 의미를 심리학 조망에서 이해하였지만, 언어학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Jaffe와 Feldstein(1970)은 화자전환침묵(switching pause)과 개인내 침묵(intrapersonal paus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화자전환침묵은 Matarazzo 등(1965, 1967, 1968)의 반응잠복시간과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언어학 용어로 한 사람이 발언을 끝내고 상대방에게 발언권(turn)을 넘겨주는 신호로 해석한다. 개인내 침묵은 Matarazzo 등(1965, 1967, 1968)의 주도반응시간과 동일한 현상을 지칭하는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한 사람의 발언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Matarazzo 등(1967, 1968)이 침묵의 동시성(synchrony) 또는 시간적 일치성(congruence) 현상을 발견한 후 이에 대한 수많은 타당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응잠복시간의 동시성(또는 일치성) 효과는 5세와 4개월된 어린 아동간의 대화(Welkowitz, Cariffe, & Feldstein, 1976), 9개월 된 아기와 어머니와의 대화(Jasnow & Feldstein, 1986), 낯선 성인(실험자)과 아동간의 대화(Newman, Linda, &

Smit, 1989; Newman & Pratt, 1990), 부모와 그들의 4-5세 되는 아들 및 딸들간의 대화(Welkowitz, Ronald, Feldman, & Mary, 1990)에서도 반복검증되었다. 또한 시간적 일치성은 비구조화된(사회적) 대화와 구조화된(과제활동) 대화(Welkowitz, Ronald, Feldman, & Mary, 1990) 및 일본어를 사용하였을 경우(Miura, 1993)에도 반복검증되어, 상당히 보편적인 언어적 상호작용기제인 것으로 거듭 밝혀졌다. 화자전환침묵 이외에 발언지속시간과 음성화(vocalization) 및 개인내 침묵의 일치성을 함께 비교한 결과 화자전환침묵에서 상호적 영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으며(Welkowitz, Ronald, Feldman, & Mary, 1990), 앞사람의 말에 언어적 단서가 있을 때는 화자전환침묵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아동간 및 성인간의 대화 모두에서 관찰되었다(Miura, 1993).

초언어적 변인의 동시성 현상이 기저의 태도와 정서(mood) 및 동기적 상태의 잠재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사(Matarazzo, 1973)에 따라 2자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영역에서 후속 연구가 자극되었다.

Welkowitz와 Kuc(1973)은 대화 파트너들이 평균발화 및 침묵길이를 매치시키는 경향성인 동시성 현상이 대화 상대방과 독립적 관찰자에 의한 공감, 온정, 진실성 등과 관계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을 짝지어 대화를 하게 하고 대화 참여자와 객관적 평정자로 하여금 관계질문지(Truax & Carkhuff, 1967) 상에 공감, 온정, 진실성을 평정하게 하였는데, 화자전환 침묵의 일치성이 독립적 관

찰자에 의한 온정의 평정에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일치성과 공감과의 관계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Welkowitz 등(1973)은 만남의 성격 자체가 상당 수준의 공감을 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Natale(1976)은 자동화된 전화 면접을 사용하여 면접자의 발화지속시간 및 반응잠복시간의 일치성과 피면접자에 의해 평정되는 치료자의 공감, 온정 및 진실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발화지속시간의 일치성과 공감 및 온정에 대한 피면접자의 지각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반응잠복시간과 개인 지각 변인들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Welkowitz 등(1973)과 Natale(1976)의 연구는 각각 낯선 사람간의 대화와 자동화된 전화면접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심리치료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침묵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 메시지에 포함된 처리 목표수와 목표의 양립가능성이 있다. 복수목표 메시지는 단수목표 메시지보다 처리시간이 길며(Greene, Lindsey, 1989), 목표의 양립가능성이 목표의 갯수에 비해 멈춤-음성(발음) 비율과 평균 멈춤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적어 복수목표 메시지는 그것이 수행되는 동안 보다 복잡한 메시지-관련 생각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된 처리 용량을 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Greene, McDaniel, Buksa, & Ravizza, 1993). 침묵을 정보처리 특성과 관련시킨 Greene 등(1989, 1993)의 연구들은 침묵이 인지적 정보의 처리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심

리상담이나 심리치료 역시도 일종의 정보처리 과정이며, 내담자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예컨대, 통찰이나 체험하기)을 하는데 더 많은 침묵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침묵이 어떤 작용이나 처치 및 과제에 의해 변화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침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이상의 연구들이 상담에 지니는 함의를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상담자는 치료적 목적으로 침묵을 조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의 침묵행동이나 관련 변인 상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담장면에서 발생하는 침묵 현상이나 내담자가 침묵을 하는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치료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와 제언

본 논문에서는 침묵 연구의 역사를 간단히 서술한 다음, 침묵의 정의와 효과 및 침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를 차례로 개관하였다. 전반적으로 침묵에 관한 연구가 드물었고 심리치료에서의 침묵의 효과를 알아보려는 연구는 특히 적었다. 침묵에 관한 연구는 연구결과가 풍부하게 누적되었지 못하며, 침묵에 관한 이론이 구축되어있지도 않은 아직 연구 초기 상태로 여러 가지 방법론적 허점을 지니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개관한 침묵관련 연구들이 지니는 연구방법론적 문제점과 미래 연구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우선 통계처리 방법을 살펴보자. 침묵을 치

료효과 및 상담과정변인과 연결시킨 대부분의 연구는 상관연구이며, 침묵의 구체적인 작용기제나 효과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의 과정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연계분석인데, 이 방법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을 1:1로 대응시키기 위하여 침묵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배제시키기 때문에 연계분석에 의한 침묵 연구는 침묵의 즉시적 효과를 검증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또한 연계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할 계획을 사전에 세우는 경우는 이에 맞추어 축어록을 풀거나 코딩을 하려는 심적 경향이 생기므로 정확성을 해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연계분석은 상담에서 발생한 실제의 침묵 현상과 괴리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상담연구에서 보려는 효과의 수준도 중요하다. Hill(1983)은 상담자의 반응에 연계된 내담자의 반응을 통해서 상담자의 처치의 즉시적 효과를 확인하고, 좋은 회기와 나쁜회기를 구분하여 회기 효과를 나름대로 연결시켜보려고 시도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즉시적 효과와 회기 효과 및 상담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침묵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려면 전체적인 상담의 성패 및 회기 성과와 침묵 사용과 같은 거시적 수준뿐만 아니라 침묵 전후의 언급과 행동의 분석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침묵이 포함된 사례와 상담자 및 내담자의 특성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중요하다. 전문 상담자에 의한 종결된 실제의 치료사례를 사용한 연구(예: Cook, 1964; Hargrove, 1974)는 매우 드물다. 실제의 상담 사례를 사용했다

고 하여도 자연적 종결을 하지 않은 한시적 상담이거나(예: Hill et al, 1983; 정방자, 1986; 금명자, 1994), 첫상담이나 초기상담만을 사용한 연구(Rowland-Morin & Carroll, 1990; 방기연, 1991; Sharpley & Harris, 1995)가 침묵 연구의 대부분을 이룬다. 상담이 아닌 다른 종류의 면접을 사용하였거나(예: 취업면접, Matarazzo, Hess, & Saslow, 1962; Matarazzo & Wien, 1967), 낯선사람간의 대화자료나(Welkowitz & Kuc, 1973), 자동화된 전화상담(Natale, 1976) 등을 사용한 연구도 있다. 상담자도 훈련 중인 상담자이거나(Lauver, Kelley, & Froehle, 1971; Sharpley & Harris, 1995, 방기연, 1991), 심지어는 심리학전공생(Welkowitz & Kuc, 1973)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Lauver와 Kelley 및 Froehle(1971)와 Sharpley와 Harris(1995)의 연구에서는 가짜 내담자를 사용하였다.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될수록 이들 연구 결과를 실제 심리치료에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커진다. 상담의 기법을 발전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연구는 전문상담자에 의한 성공적 상담의 특성을 규명해내는 것이므로 힘들더라도 연구에 전문상담자의 성공사례를 적어도 일부는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평정자에 따라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포, 공감, 작업동맹, 회기평정 등의 과정변인을 내담자가 평정하였는지 상담자가 평정하였는지 제3자가 평정하였는지에 따라 침묵과의 상관이나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Welkowitz와 Kuc(1973)은 대화 참여자와 객관적 평정자 모두에게 관계성을 평

정시켰는데 객관적 평정자의 관계성 평정만이 화자전환침묵의 동시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현실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여러 입장의 평정자를 고루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언어반응유목은 제3자가 코딩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상담자의 원래의 의도가 간과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가 자신의 반응을 직접 코딩하는 의도차원을 함께 연결시켜서 보려는 최근의 시도(예: 금명자, 1994)는 고무적인 일이다.

침묵 자체가 지니는 특성은 연구에 큰 제한을 가한다. 첫째로, 침묵은 길이가 저마다 달라서 과정변인과 결과 변인들간의 관계를 검토하기가 어렵다. 심리치료에서도 언어학에서처럼 침묵을 그 길이에 따라서 세분하여 코딩한다면, 실제의 침묵 현상에 보다 접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2자간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묵은 현상적으로 4가지인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침묵을 일괄처리하거나 소유자에 따라 묵어서 공감, 라포, 작업동맹 등의 변인과 연결시켰으므로 침묵의 종류별 특성이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미래의 연구는 발생맥락에 따른 이들 4가지의 침묵을 구분하여 과정 및 결과와 연결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침묵의 의미에 관한 양적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Greenson(1961)은 저항으로서의 침묵과 의사소통으로서의 침묵의 구별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피분석자가 침묵 중에 드러내는 환자의 비언어적 행동(예컨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의 여부, 숨소리, 몸자세, 손동작 등)을 관찰하면 내담자의 침묵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han(1963)은 역전을 통해 피분석가의 침묵

의 의미를 파악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초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특성과 침묵의 의미를 연결시키거나, 침묵 전후의 발언의 내용적 분석을 통한 침묵의 의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확한 연구는 자료의 정확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정확한 자료의 수집은 녹음, 축어록, 코딩이나 평정의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신뢰롭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러한 기초자료의 정확성이 뒷바침되지 않은 연구는 잘못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언어학적으로 접근한 몇몇 연구는 침묵기계(digital spectrograph)를 사용하여 침묵을 측정함으로써 오차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는데(예: Newman, Linda, & Smit, 1989; Newman & Pratt, 1990; Welkowitz, Ronald, Feldman, & Mary, 1990) 상담이나 교육 분야에서 접근한 대부분의 연구는 초시계를 이용하여 침묵을 대략적 측정하였다(예: Cook, 1964; Hargrove, 1974; Lauver, Kelley, & Froehle, 1971; Hill, 1983; 정방자, 1986; Rowland-Morin과 Carroll, 1990). 어떤 연구는 축어록을 작성할 때 말에 중심을 두어 풀고 침묵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기도 하였다(예: 금명자, 1984).

정확한 기초자료의 수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코딩이나 평정의 정확성과 관련된다. 몇몇 국내연구들에서 드러난 Hill(1978, 1981)의 침묵 반응에 대한 오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코딩의 정확성을 해치고 연구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후속 연구의 방향을 오도할 수 있다. 한 번 오역되면 후속연구들이 그 잘못된 번안을 잘못된

줄을 모르고 계속 차용하게 되어 왜곡된 연구 결과를 산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성경(1988), 방기연(1991), 유정이(1990) 및 금명자(1994)는 모두 정방자(1986)가 번역한 Hill(1981)의 번안본을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침묵과 관련된 코딩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그 결과 역시도 신뢰하기가 어렵다.

상담 연구는 대단히 복잡한 작업과정을 거친다. 상담을 녹음하고 축어록을 풀어야 하고, 풀어진 축어록을 코딩 또는 평정해야 한다. 50분 상담 1회기를 정확한 축어록으로 작성하는데만 15-20시간이 걸린다(Grünzig, 1988). 코딩이나 평정의 정확성을 위해 같은 내용을 2-3명이 평정하여 그 일치도를 낸다. 그 외에도 관심 갖는 변인들이 있으면 이를 상담 매회기 전후 및 사전에 정해 놓은 특정한 시기에 측정을 한다. 전체 상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담시작전, 중간의 몇몇 시점, 종결직후, 및 일정기간의 추수시점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자료수집과정을 모두 제대로 수행했다고 하여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연구에 사용할만큼의 질적 수준이 보장된 상담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자가 적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전문상담자의 양성은 줄잡아 10년이 걸린다. 심리치료 연구가 드물고 발전이 더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자료수집의 어려움에 있다. 1996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53편의 논문 중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관련된 논문은 단 1편에 불과하였다. 일정 수준의 상담사례 자료를 마련한다는 것을 결국 그 사회의 상담 및 임상심

리학의 발전 수준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서 한 편의 논문을 쓰고 그 자료를 사장시킨다면 이처럼 큰 낭비는 없다. 질적인 연구를 보장하는 치료사례의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독일에서는 Ulm Textbank, 미국에서는 PRC(Psychoanalytic Research Consortium)와 같은 자료은행을 만들어, 연구안을 심사하여 자료를 대여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Kächele, Mergenthaler, & Hölzer, 1994). 축어록과 평정이 정확한 상담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면 심리치료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으며, 한 개인으로서는 시도할 수 없는 보다 복잡하고 힘든 의미있는 연구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나라에도 심리치료 관련 자료은행이 빠른 시일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방자 (1986). 정신역동적 상담과정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변화 분석.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금명자 (1994). 상담 단계와 내담자 체험수준에 따른 상담자 개입패턴의 즉시적 성과.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방기연 (1991). 상담 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자 반응간의 관계.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유성경 (1988).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상담효율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1, 79-92.
- Arlow, J. A. 1961). Silence and the theory of technique.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9, 44-55.
- Bales, R. F. (1950) *Interaction process analysis: A method for the study of small group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Bales, F. F. (1969).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usch, Fred(1978). The silent patient: Issues of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peech development.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 Analysis*, 5, 491-500.
- Chafe, W. L. (Ed.). 1980. *The pear stories: Cognitive, cultural, and linguistic aspects of narrative production*, Norwood, NJ: Ablex.
- Coltart, N. (1991). The Silent Patient. *Psychoanalytic Dialogue*, 1, 439-453.
- Cook, J. J.(1964). Silenc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1, 42-46.
- Dahl, H. (1979). *Word frequencies of spoken American English*. Verbatim, Essex.
- Dahl, A. A.(1988). Aspects of the analysis of a patient with severe depression. *Scandinavian Psychoanalytic Review*, 11, 3-23.
- Dahl, E. K. (1989). Daughters and mothers: Oedipal aspects of the witch-mother.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44, 267-280.
- Danish, S. J., & Hauer, A. L. (1973). *Helping skills: A basic training program*.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Dewald, P. A. (1969). *Psychotherapy: A Dynamic Approach*(2ed.). New York: Basic Books.
- Du Bois, J. W., Schuetze-Coburn, S., Cumming, S., & Paolino, D. (1993). In J. A. Edwards & M. D. Lampart(Eds). *Talking Data: Transcription and coding in discourse research*(pp.45-89).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d Publishers.
- Ferenczi, S. (1911). On obscene words. In *Sex in Psychoanalysis*(1950, pp .132-153). New York: Basic Books.
- Goodman, G., & Dooley, D. (1976). A framework

- for help intended communicat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3, 106-117.
- Goodwin, C. (1981). *Conversational organization: Interaction between speakers and hearers*. New York: Academic Press.
- Greene, J. O., & Lindsey, A. E. (1989). Encoding processes in the production of multiple-goal message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16, 120-140.
- Greene, J. O., McDaniel, T. L., Buksa, K., & Ravizza, S. M. (1993). Cognitive processes in the production of multiple goal messages: Evidence from the temporal characteristics of speech.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57, 65-86.
- Greenson, R. R. (1961). On the silence and sounds of the analytic hour.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9, 79-84.
- Grünzig, H-J. (1988). Time-series analysis of psychoanalytic treatment processes: Sampling problems and first findings in a single case. In H. Dahl, H. Kächele, & H. Thomä (Eds). *Psychoanalytic process research strategies* (pp. 213-226). Berlin Heidelberg: Springer-Verlag.
- Hadda, J. (1991). The ontogeny of silence in an analytic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 Analysis*, 72, 117-130.
- Halkedes, G. (1958). *An experimental study of four conditions necessary for therapeutic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Hargrove, D. S. (1974). Verbal interaction analysis of empathic and nonempathic responses of therap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305.
- Hill, C. E. (1978). Development of a counselor verbal response category syst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461-468.
- Hill, C. E., Carter, J. A., & O'Farrell, M. K. (1983). A case study of the process and outcome of time-limite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3-18.
- Hill, C. E., Greenwald, C., Reed, K. R., Charles, D., O'Farrell, M. K. & Carter, J. A. (1981). *Manual for counselor and client verbal response category systems*. Columbus, Ohio: Marathon Consulting and Press.
- Ivey, A. E. (1971). *Microcounseling: Innovations in interviewing training*.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 Jaffe, J., & Feldstein, S. (1970). *Rhythms of dialogue*. New York: Academic Press.
- Jasnow, M., & Feldstein, S. (1986). Adult-like temporal characteristics of mother-infant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57, 754-761.
- Kagan, N. (1972). *Influencing human interaction*. Unpublished manuscript, Available from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chigan.
- Khan, M. M. R. (1963). Silence as communication.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27, 300-310. also In M. M. R. Khan (Ed.). *The privacy of the self* (1974, pp. 168-180). London: Hogarth Press.
- Kächele, H. (1983). Verbal activity level of therapists in initial interviews and long-term psychoanalysis. In Wr. Minsel, & W. Herff (Eds). *Methodology in psychotherapy research* (pp. 116-161). Frankfurt: Lang.
- Kächele, H., Mergenthaler, E., & Hölzer M. (1994). Psychoanalytic practice: A critique of the traditional case histories and a new model for practice-relevant research (The Ulm Tesbank). *Proceedings of 1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therapy* (1994, Seoul, Korea), 11-22.
- Lauver, P. J., Kelley, J. D., & Froehle, T. C. (1971). Client reaction time and counselor verbal behavior in an interview sett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8, 26-30.

- Liegner, E. (1974). The silent patient. *Psychoanalytic Review*, 61, 229-245.
- Matarazzo, J. D. (1973). A speech interaction system. In D. J. Kiesler(Ed.). *The process of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 Matarazzo, J. D., & Wiens, A. N.(1967). Interviewer influence on duration of interviewee silence. *Journal of Experimental Research on Personality*, 2, 56-69.
- Matarazzo, J. D., & Wiens, A. N., Matarazzo, R. G., & Saslow, G. (1968). Speech and silence behavior in clinical psychotherapy and its laboratory correlates. In J. M. Shlien(Ed.). *Research in psychotherapy* (Vol. 3, pp. 346-394).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tarazzo, J. D., Hess, H. F., & Saslow, G.(1962). Frequency and duration characteristic of speech and silence behavior during interview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 416-426.
- Matarazzo, J. D., Wien, A. N., & Saslow, G. (1965). Studies of interview speech behavior. In L. Krasner and L. P. Ullmann(Eds.). *Research in behavior modification: New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pp. 179-210).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Mentzos, S. (1982). *Neurotische Konfliktverarbeitung.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tische Neurosenlehre unter Berücksichtigung neuer Perspektiven*. Munich: Kindler.
- Mergenthaler, E., & Kächele, H. (1988). The Ulm textbank management system: A tool for Psychotherapy research. In H. Dahl, H. Kächele, & H. Thomä(Eds). *Psychoanalytic process research strategies*(pp. 195-211). Berlin Heidelberg: Springer-Verlag.
- Miura, I. (1993). Switching pauses in adult-adult and child-child turn takings: An initial study.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2, 383-395.
- Morgenstern, A. (1980). Reliving the last goodbye: The psychotherapy of an almost silent patient. *Psychiatry*, 43, 251-258.
- Natale, M. (1976). Interviewee matching of interviewer temporal speech behaviors as related to perceived empathy, warmth, and genuinenes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407-412.
- Newman, L. L., Pratt, S. R. (1990). Adaptive self-stabilization in adult-child interactions: Temporal congruence with varied switch-pause durations. *Discourse Processes*, 13, 363-374.
- Newman, L. L., Smit, A. B. (1989). Some effects of variations in response time latency on speech rate, interruptions, and fluency in children's speech.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2, 635-644.
- Rogers, C. R., & Rablin, R. A. (1960). *A scale of process in psychotherapy*. Unpublished mimeo manual. University of Wisconsin.
- Rowe, M. B.(1974a). Wait-time and rewards as instructional variables: Their influence on language, logic, and fate control.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11, 81-94.
- Rowe, M. B.(1974b). Reflections on wait-time: Some methodological question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11, 263-279.
- Rowland-Morin, P. A., & Carroll, J. G. (1990). Verbal communication skills and patient satisfaction: A study of doctor patient interviews. *Evaluation and the Health Professions*, 13, 168-185.
- Ruhl, K. L., Hughes, C. A., & Gajar, A. H. (1990). Efficacy of the pause procedure for enhancing learning disabled and nondisabled college students' long- and short-term recall of facts presented through lecture.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13, 55-64.
- Sharpley, C. F., & Harris, M. A. (1995). Antecedents, consequents, and effects of silence during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 interviews. *Scandinavian Journal of Behaviour Therapy* 24, 3-15.
- Snyder, W. U. (1945). An investigation of the nature of nondirective psychotherapy.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33, 193-223.
- Snyder, W. U. (1963). *Dependency in psychotherapy: A casebook*. New York: Macmillan.
- Stiles, W. B., & Sultan, F. E. (1979). Verbal response mode use by client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611-613.
- Strupp, H. H. (1960). *Psychotherapists in action: Explorations of the therapist's contribution to the treatment process*. New York, Grune & Stratton.
- Tenzer, A. (1992). The difficult patient or the difficult dyad? Subservience and its rewards. *Contemporary Psychoanalysis*, 28, 512-519.
- Tibbles, P. N., Russell, G. (1992). The silence of symbiosis: The difficulty in separating a silent adolescent daughter and an uncommunicative mother. *British Journal of Psychotherapy*, 8, 266-277.
- Tindall, R. H., & Robinson, F. P. (1947). The use of silence as a technique in counsel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 136-141.
- Tobin, K. G., & Capie, W. (1983). The influence of wait-time on classroom learning. *European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5, 35-48.
- Tobin, K. G. (1980). Effects of an extended wait time on science achievement.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17, 469-475.
- Tobin, K. G. (1984). Effects of extended wait time on discourse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grade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21, 779-791.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in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 Wampold B. E. & Kim, K. H. (1989). Sequential analysis applied to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 A case study revisite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57-364.
- Welkowitz, J., & Kuc, M. (1973). Interrelationships among warmth, genuineness, empathy and temporal speech patterns in interpersonal inter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472-473.
- Welkowitz, J., Cariffe, G., & Feldstein, S. (1976). Conversational congruence as a criterion of socializa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7, 269-272.
- Welkowitz, J., Bond, R. N., Feldman, L., & Tota, M. E. (1990). Conversational time patterns and mutual influence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 time series approach.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9, 221-243.
- White, A. M., Fichtenbaum, L., & Dollard, J. (1964). Measure for predicting dropping out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8, 326-332.
- Wolf, M. H., Putnam, S. M., James S. A., & Stiles, W. B. (1978). The Medical Interview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patient perceptions of physician behavior.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 391-401.
- Zeligs, M. A. (1961). The psychology of silence.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9, 7-43.

Silence in Psychotherapy: A Review

Kyung-Jin Sh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tudent Counseling Center

This paper describes briefly the history of the studies on silence from the psychoanalytical and counseling viewpoints. It, then, reviewed the definition and effect of silence (pause?) as well as factors affecting it. The silence was defined in terms of the length of silence and the person involved. The length of silence was discussed by comparing its classification in counseling and psychoanalytical areas with that in linguistics. With respect to the type of silence and the person involved, comparison was made between Hill's (1978, 1981) definition and that of Matarazzo and others (1967, 1968). Hill classified the silence only in terms of the individual person involved, whereas Matarazzo et al divided it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Most of the studies on the effect of silence in the area of psychotherapy report that the sile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success, the empathy and the satisfaction on interview. The connection between the silence and the counseling process was made for the first time by Hill when he attempted to single out the effect of silence from the various response categories. This paper also discusses several possible reasons why th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lence and the counseling process revealed inconsistent results. On the educational arena, some studies pointed out that the students' general achievement and the quality of their response are significantly raised when the silence of 3-5 seconds in duration is used by teachers as a lecture technique. Factors affecting the silence such as the variation in reaction time latency and the complexity of the task are related to the length of silence. The reaction time latency synchrony is a concept Matarazzo et al introduced as a variable affecting silence. This concept indicates that when a person in a two-person conversation situation increases or decreases the reaction time latency, the other person reacts accordingly as well. This phenomenon proved to be universal in a 2-person interaction.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study on silence is still on its infant stage without any established theory, discusses many methodological problems and suggests some future directions.